

지역 소식통

김제시,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 기여금이 인하 및 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000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000원)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현행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현행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미디어 센터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미디어특화 문화시설인 완주미디어센터(센터장 안충환)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은 영상 촬영·편집 등 완주미디어센터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읍면 문화시설 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동상생활문화센터에서 '내 손안의 단짝!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5회 진행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이서문화의집과 함께 '성인대상 숏폼 제작 교육'을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구이생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영상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숏폼 제작 및 SNS 활용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은 "미디어 교육에 관한 주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미디어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지진 발생 대처 지속 유지

지진 피해현장 방문 등 지속 모니터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를 가동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일원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으로 김제(13일 10시 현재)



김제시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에는 공공시설, 복지시설 5건, 주택 7건, 공동주택 1건, 학교 1건, 양어장 1건 등 1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진발생 이후 오전 8시 41분 재난안전문자 발송, 8시 50분 상황전파 및 전 부서 및 읍면동에 지진피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9시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9시 30분 이찬준 부시장 주재 실·국장 회의의 소집으로 재대본 운영을 지시해 9시 40분 안전개발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대본 운영을 결정했다. 시는 이날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 1단계를 발령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날 피해현장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시는 향후 여진 지속 모니터링과 비상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응 미숙이나 처리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취미클래스 '슬기로운 취미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 '슬기로운 취미생활' 운영

미혼청년 취미클래스 오는 27일까지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취미클래스 '슬기로운 취미생활' 프로그램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취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바리스타(화, 목)와 양식요리(화, 수) 총 2개 프로그램으로 3주에 걸쳐 12회 운영된다.

참가자 모집은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만 22세에서 만 45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사업체·유관기관 재직,

기 신청 여부, 주소지 등을 감안해 총 40명을 선정했다. 지난 11일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바리스타, 양식요리 1회차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교육은 본인이 만든 요리 및 작품을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혼청년 취미클래스를 통해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관내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하여 만남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공공승마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봇물

완주군의회, 농업축산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주갑 위원장)가 13일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4일차를 일정을 진행했다.

농업축산과 감사에서는 승마장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등 다양한 현안사항들에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이순덕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유의식, 심부건, 김규성, 최광호, 성중기, 유이수, 이주갑 의원 등은 공공승마장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에 나섰다.

공공승마장 승마 3두 추가 구입 후 인수거부 분쟁발생으로 물품계약이 지연된 상태를 지적하고, 수탁기관의 수입발생 시 인건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

다. 더불어 수시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마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주문했다. 또한,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운영방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당초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면서 운영에 대한 메뉴얼 및 계획수립이 아주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승마 감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승마협회와 소통하며, 전문성 있는 직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승마장 운영 주관 부서가 농업축산과와 당초 목적에 맞는 관공체육분야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힘써 달

라 요구했다. 의원들은 타시군의 많은 우수사례와 실패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에도 벤치마킹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수사례를 공공승마장에 운영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신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 냉해피해 보상, 농업기금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등 농업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승마장 사업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많았다"며, "공공승마장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승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염재복 기자

인구 느는 완주, 자동차도 늘었다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 부과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완주군이 지난해 보다 3,040여 건이 늘어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분세 기준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4만 4,856건으로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비해 3,040여 건 증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김제시, 7월 1일부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이동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 주소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할 수 있으며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1 대면으

로 심리상담 서비스(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면 된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3일부터 모집 중이며 시설, 인력 및 자격기준 등을 갖춘 증명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제공기관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7월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63-540-27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